

## 패션디자이너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수준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김 지 영

강동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 The Level of Knowledge Required to Fulfill the Task of Fashion Design - A Cross-cultural Stud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Ji-Young Kim

Prof., Dept. of Fashion Design, Gangdong University  
(2014. 7. 15. 접수; 2014. 8. 29. 수정; 2014. 9. 3. 채택)

#### Abstract

Employees overseas have a need to prepare according to the different environments and industrial structures between countries. Therefore, to investigate qualities for fashion designers to possess when they work abroad,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compared the level of knowledge required to fulfill the work of fashion design in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sponses from workers who are engaged to fashion design from the representative online career information systems of two countries, 'Worknet' in South Korea and 'O\*Net' in the United States, were used as data.

Looking at the result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is study, first by comparing various statistical indicators, results showed the difference between knowledge level required to fashion designer in South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Even with the same type of job, because environments and industrial structures of each country are dissimilar, a different level of knowledge will be required in order to perform their tasks.

Second, fashion designers in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quired a high level of knowledge in the 'fine art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production and processing', and 'design' to perform their duties as a fashion designer. As a result, both countries have similarities that fashion designers need to possess a high level of the knowledge in areas such as 'production of products' as well as 'sales of products'. Furthermore, human relationship field of knowledge such as 'counseling', 'psychology', and 'communication' appeared to be more necessary to fashion designers in South Korea than those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higher degree of knowledge of 'machines and tools', 'fine arts', and 'transportation' appeared to be more necessary to fashion designers in the United States than those in South Korea.

Key Words: Knowledge(지식), Overseas employment(해외취업), Fashion designer(패션디자이너)

## I. 서론

몇 년 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청년실업은 전 세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사

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을 해 왔으며,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일자리 보급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실업률은 3.1%로 전년대비 0.1% 하락하였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8.0%로 전년대비 0.5% 상승하였다고 한다. 또한 2014년 2월에는 청년실업률이 10.9%로써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14).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화, 세계화가 급류를 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해외취업진출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년층의 해외취업진출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해외 인적 교류를 통한 새로운 기술 획득, 해외 직장 경험 등으로 글로벌화에 대응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등 경제외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권경득, 2012).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청년위원회(2014)에서는 2014년 해외 취업을 하기에 유망한 10개국 중에 하나로 미국을 선정하였다. 청년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외국인력 채용수요가 급상승하고 영어 실력을 갖춘 우리나라 인력이 인턴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법인 설립이 활발하여 국내인력의 채용 수요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취업이 유리한 업종으로 IT, 엔지니어링을 비롯하여 디자인을 꼽고 있다(청년위원회, 2014).

따라서 이 분야에서 국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취업진출에 관심을 갖는 것도 국내 청년실업률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그 국가 어느 특정직에 필요한 기본적 자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는 같은 직종이더라도 각국의 산업적 구조 특성에 따라 취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직종에서 필요한 지식은 그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기본적인 자질

로 필요에 따라 비교적 습득하기 쉬운 자질 중에 하나이다. 지식은 특정영역에 관한 사리, 정보, 그리고 원리들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교육과 훈련 혹은 특정경험을 통해 습득된다. 지식도 업무수행능력과 마찬가지로 직업들을 이해하고 기술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훈련, 경력, 상담, 선발, 및 배치 등의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김균, 2012). 따라서 패션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지식의 수준은 한국과 미국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은 해외진출을 원하는 구직자 뿐 아니라, 교육기관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패션디자이너들이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여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미국으로 진출하여 취업할 경우 갖추어야 하는 자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한국의 패션디자이너 취업현황

현재 한국의 패션 관련 산업에서는 취업자들이 직장에 부적응하는 사례가 많고, 이직률이 심하여, 업체에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줄 뿐 아니라 고용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지영, 박수희, 2013).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2014)에 의하면, 향후 5년간 패션디자이너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20여 년간 국내 패션시장은 성장기에 있었으나 이제 본격적인 성숙기, 즉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패션디자이너가 주로 근무하는 의류업계는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는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의류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류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과 저원가 생산국의 국내시장 잠식, 그리고 해외브랜드 선호가 높아지면서 해외 브랜드들의 국내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및 대학교, 패션관련 각종 사설교육기관에서 패

년 무수히 많은 전문 인력들이 배출되면서 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어서 향후에도 패션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관련 업체에서는 경력 있는 패션디자이너를 선호하고 있어 신규인력의 진입장벽은 높은 편이다(한국직업전망, 2014).

그러나 2014년 들어 고부가가치 산업 장려의 일환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섬유패션산업의 전망은 밝아질 것으로 보인다. 어패럴뉴스(이연채, 2014)에 의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2014년 패션 지원 사업이 해외진출과 마케팅 지원에 집중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섬유패션산업의 패션지식기반화사업과 섬유패션 기술향상사업 등 2개 부문에 투입예산을 작년 대비 20%나 크게 늘렸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패션문화지원 사업을 장려하면서 한국패션문화 해외진출지원 사업, 패션문화마켓 개최지원 사업, 신진 디자이너 판로 개척지원 사업, 창의 디자이너 육성사업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이연채, 2014). 그러므로 섬유패션산업에 대한 이러한 지원의 힘을 입어, 선진국의 장기간의 경기부진과 국외 생산 환경변화에 따른 위축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패션디자이너의 취업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패션디자이너의 수입을 살펴보면, 2013년도 연봉은 3,100만원이었고, 하위 25%가 2,400만원, 상위 25%가 4,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직업정보검색-패션디자이너, 201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2014)에 따르면 2013년 직장인의 평균연봉은 3,143만원으로, 패션디자이너의 연봉은 직장인 평균연봉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미국의 패션디자이너 취업현황

미국에서 현재 패션디자이너로 고용된 취업자는 22,300명이며, 2022년에는 21,700명으로 3%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Occupational Profile, 2014).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6,400명에서 7,300명으로 14%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Occupational Profile, 2014)하고 있어, 패션디자이너의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될 것이라는 것이 적절한 설

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패션시장은 트렌드의 발신지이며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미국 패션 시장은 정보를 공급받는 시장 조사를 위한 지역 정도의 역할이었으나 현재는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주를 받으면서 해외 진출을 경험하는 장이 되고 있다(신수연, 조정아, 2009). 또한 의복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첨단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패션디자이너가 하는 일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패션디자이너직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미국 내에서 패션디자이너의 연봉은 다른 직업보다 높은 편이다. 미국 노동부(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매년 실시되는 직업고용통계에 따르면 2013년 패션디자이너의 연봉은 \$63,800(Occupational Profile, 2014)로 미국 내 취업자들의 평균 연봉인 \$46,440(News Release, 2014)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패션디자이너의 해외취업 전망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발전하였으며, 각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환경은 대량실업의 발생과 실업률증가로 연결되었다. 특히 청장년들의 실업증가는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각국에서는 청장년들의 재취업 및 신규취업률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종태, 조현수, 2009). 현 정부의 5대 국정과제 중 산업경제와 관련하여 중심키워드 중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리고 이에 가장 부합하는 산업으로 패션의류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가장 부합하는 산업으로 꼽을 수 있다(임이자, 2014). 또한 패션의류산업은 패션제품의 기획, 생산, 판매 등의 모든 단계들이 해외의 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패션사업의 구조로 패션관련 직종들의 해외진출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전망이 밝은 편이며, 국내 실업률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패션디자이너들의 중국 내의 진출도 활발한데, 중국의 대표 여성브랜드인 ‘EP’, ‘V-GLASS’, ‘LANCY’ 등에서는 이미 디자인 팀의 핵심 인력이 모두 한국인 중심이거나,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에게 컨설팅을 받거나, 또는 한국 디자이너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높은 연봉을 받으며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박승찬, 20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국가정보(2013)에 따르면 미국에서 외국인 취업 유망산업 중 하나로 전문디자인 분야를 꼽고 있다. 또한 이미 많은 한국인이 진출해 있으나, 해당분야의 한국인 전문가들이 업계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아지며, 패션, 제품, 시각, 건축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발히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취업비자 신규 발급건수는 2009년과 2010년 회계연도에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며 미국 고용시장이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2년 연속 큰 증가세로 보이고 있어 미국 고용시장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3).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시스템에 제시되어 있는 패션디자이너의 학력 및 연봉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를

비교해보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2~3년제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자였으나,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자도 31%나 되었다. 두 나라 모두 4년제 대학졸업자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적절한 직업교육을 받으면 대학교 졸업에 관계없이 미국에서는 패션디자이너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보다 더 많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패션디자이너들은 미국 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면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두 국가 패션디자이너의 연봉을 비교해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패션디자이너는 한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미국의 패션디자이너는 미국 직장인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의 미국의 패션디자이너가 한국에서보다 보수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섬유패션산업의 한국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증가하고 한국패션문화의 해외진출이 장려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미래 사업적 환경도 밝은 전망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 내 패션디자이너는 다른 직종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직종일 뿐 아니라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이 아니므로 미국은 패션디자이너로

<표 1> 한국과 미국 패션디자이너의 학력 및 연봉

학력 및 연봉		국가	한국	미국
학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6	31
	2~3년제 대학교 졸업		21	13
	대학교 졸업		68	47
	대학원 졸업 이상		5	9
	합계		100	100
연봉 (한국:만원 미국:\$)	상위 25%		4,000	89,300
	평균 (50%)		3,100	63,800
	하위 25%		2,400	44,600

(출처: 한국 <http://www.work.go.kr>, 미국 <http://www.careerinfonet.org>)

취업을 원하는 국내의 청년층들에게는 매력적인 나라일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한국과 미국에서 패션디자이너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 분야별 지식의 수준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패션디자이너들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수준에 있어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패션디자이너들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 분야별 지식수준에 있어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 2. 자료수집

한국의 자료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에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미국의 자료는 O\*Net(The 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은 직업정보 및 노동시장정보를 알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국내 직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한국의 대표적 직업정보 온라인 시스템이며, O\*Net은 미국의 대표적 온라인 시스템이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코드에 따라 분류된 총 784개 직업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해당 직무를 1년 이상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특성에 따라 확률표본추출과 임의표본추출을 병행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784개 각 직업별로 이렇게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업무환경, 흥미, 업무수행능력, 가치관 지식, 성격 등이 조사되었는데(김균, 2012), 이러한 정보들은 엑셀형식의 자

료로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다. O\*Net Resource Center는 미국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미국의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미국 내 934개의 직업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시된 조사의 자료들은 텍스트문서 또는 PDF형식으로 O\*Net에 탑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된 패션디자이너의 자료 중 지식에 관한 자료(Knowledge, 2014; 784개 직업의 역량(지식) 백분위점수, 2013)를 이용하였다. 패션디자이너의 지식에 관한 자료는 실제적으로 한국과 미국 각각 30명의 패션디자이너가 설문 응답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O\*Net에서 사용한 지식문항들은 산업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적 지식 33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의 자료에서 사용된 지식문항은 미국의 O\*Net에서 사용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김균, 2012). 설문은 현직 패션디자이너들에게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지식/성격조사 설문지, 2008).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의 자료는 백분위점수로, 미국의 자료는 평균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통계분석을 위하여 우선 백분위수와 평균을 정규분포등가점수(NCE, normal curve equivalent scores)로 변환시킨 후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9.3을 사용하였으며, 두 국가의 자료를 전반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CCC(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cient), rpa(coefficent of profile agreement), ICCde(double-entry intraclass correlation) 등의 index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패션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지식수준의 차이를 각 지식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효과크기(ES, effect size)를 구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지식수준의 전반적인 차이

한국의 패션디자이너와 미국의 패션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수준을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각 지식수준의 정규분포등가점수를 쉽게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양국의 전반적인 차이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CCC,  $r_{pb}$ , ICCde 등의 여러 index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CCC는 두 변수 사이의 일치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로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고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하게 불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연속변수인 경우, CCC가 >0.99 일 때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하고, <0.90일 때 일치 정도가 낮다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CCC=0.401로 일치 정도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좀 더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다른 지표인  $r_{pb}$ 과 ICCde를 구하였다. 특정 기준치 없이 두 값의 일치 정도를 판단할 때, 이 두 지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ICCde는 Pearson의 상관관계와 비슷하지만 아이템들의 전반적인 윤곽 뿐 아니라 고저의 차이에도 민감한 지표이다(McCrae, 2008).  $r_{pb}$ 과 ICCde는 상관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r_{pb}$ =0.349, ICCde=0.387로 두 지표 모두 0.4보다 작았다.

그러므로 CCC,  $r_{pb}$ , ICCde 등의 지표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세 값 모두 일치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패션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지식수준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같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에 패션디자이너로 취업을 원하는 한국의 구직자들은 패션디자인 업무에서 요구하는 지식수준이 미국과 한국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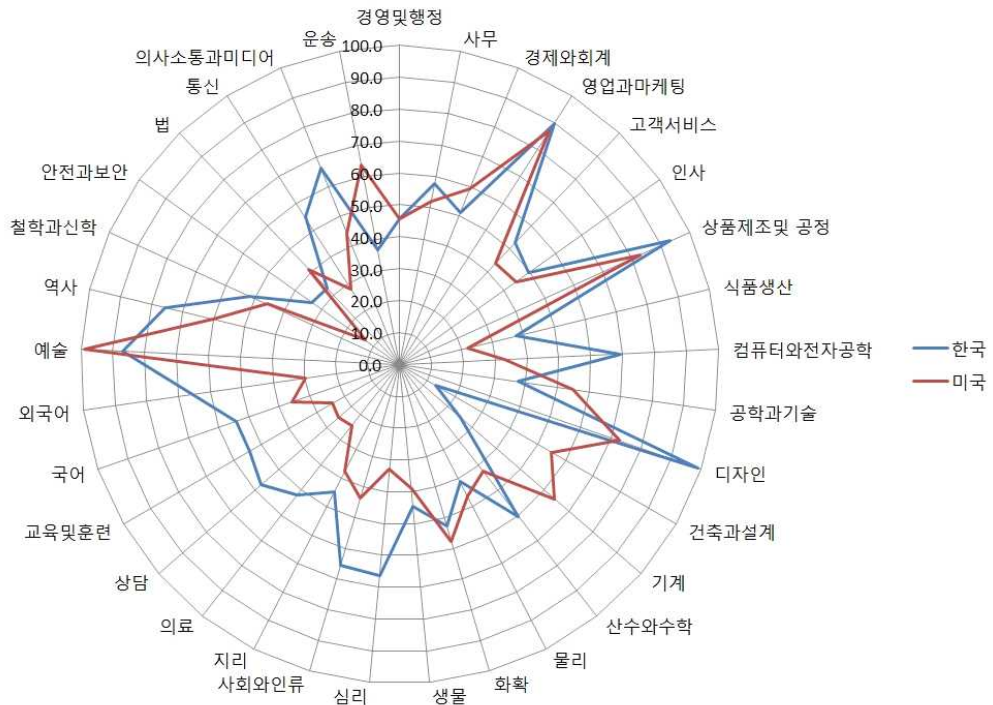
<표 2> 한국과 미국의 패션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지식수준

지식수준	한국	미국	차이	ES (Effect size)
경영및 행정	45.7	45.7	0.0	0.00
사무	57.6	52.1	5.5	0.26
경제와 회계	51.1	59.3	-8.2	-0.39
영업과마케팅	89.6	86.9	2.7	0.13
고객서비스	52.6	43.6	9.0	0.43
인사	49.5	44.7	4.8	0.23
상품제조및 공정	93.3	82.7	10.6	0.50
식품생산	37.7	21.8	15.9	0.75
컴퓨터와 전자공학	69.3	33.0	36.3	1.72
공학과 기술	37.7	54.8	-17.1	-0.81
디자인	99.0	72.8	26.2	1.24
건축과설계	13.1	54.8	-41.7	-1.98
기계	25.3	64.2	-38.9	-1.85
산수와 수학	60.4	42.4	18.0	0.85
물리	41.3	46.3	-5.0	-0.24
화학	52.6	57.6	-5.0	-0.24
생물	44.7	39.0	5.7	0.27
십리	66.3	33.0	33.3	1.58
사회와 인류	65.6	43.6	22.0	1.04
지리	44.7	37.7	7.0	0.33
의료	52.1	24.2	27.9	1.32
상담	57.6	25.3	32.3	1.53
교육 및 훈련	54.3	24.2	30.1	1.43
국어	54.3	35.8	18.5	0.88
외국어	65.6	29.9	35.7	1.70
예술	86.9	99.0	-12.1	-0.57
역사	75.8	60.4	15.4	0.73
철학과 신학	51.6	45.7	5.9	0.28
안전과 보안	33.7	13.1	20.6	0.98
법	33.0	41.3	-8.3	-0.39
통신	54.8	28.2	26.6	1.26
의사소통과 미디어	66.3	44.1	22.2	1.05
운송	36.4	63.6	-27.2	-1.29

CCC = 0.401

$r_{pb}$  = 0.349

ICCde = 0.387



〈그림 1〉 한국과 미국의 패션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지식수준 그래프

## 2. 분야별 지식수준의 차이

한국과 미국의 지식수준의 차이를 각 지식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효과크기를 구하였다. 효과크기란 평균치들 간의 차이크기를 표준편차와의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분석결과의 강도를 나타낸다(네이버 지식백과, 2014:교육평가용어사전, 2004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효과크기가  $\geq 1.80$  일 때, 효과가 높다고 하는데 이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효과크기가  $1.50$ 에서  $1.80$ 사이 일 때는 효과크기가 중간수준이라고 하고, 효과크기가  $\leq 1.50$ 일 때는 효과크기가 낮다고 한다. 효과크기가 0일 때는 평균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Cohen, 1992).

효과크기의 결과를 살펴보면(표 2), ‘컴퓨터와 전자공학’(ES=1.72), ‘디자인’(ES=1.24), ‘산수와 수학’(ES=0.85), ‘심리’(ES=1.58), ‘사회와 인류’

(ES=1.04), ‘의료’(ES=1.32), ‘상담’(ES=1.53), ‘교육 및 훈련’(ES=1.43), ‘국어’(ES=0.88), ‘외국어’(ES=1.70), ‘안전과 보안’(ES=0.98), ‘통신’(ES=1.26), ‘의사소통과 미디어’(ES=1.05)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효과크기가 0.8보다 정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수행을 위해 한국의 패션디자이너들이 미국의 패션디자이너들보다 이 분야의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한국에서 패션디자이너로 일하려면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과 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심리, 상담, 의사소통과 같은 인간관계적인 지식이 미국에서보다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어’나 ‘외국어’와 같은 언어영역에서도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 높은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한국에서 지식설문조사 시 ‘영어’로 조사되었는데는 해외 아웃소싱이 필수적이고 해외진출이

활성화된 패션산업에서 한국의 패션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지식 중 하나일 것이다.

반면에 효과크기가 부적으로 큰( $ES \leq -.80$ ) ‘공학 기술’( $ES = -0.81$ ), ‘건축과 설계’( $ES = -1.98$ ), ‘기계’( $ES = -1.85$ ), ‘운송’( $ES = -1.29$ )에 대한 지식에 있어 미국 패션디자이너들은 한국 패션디자이너들보다 더욱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서는 패션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기술이나 기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지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미국에서는 의류제조나 판매 등에 하이테크를 반영하거나 첨단 기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송’에 대한 지식도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많았는데, 이는 미국은 국토면적이 넓어 원자재수급, 생산, 판매 등의 흐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운송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경영과 행정’( $ES = 0.00$ )과 ‘영업과 마케팅’( $ES = 0.13$ ) 분야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과 마케팅’은 양국의 정규분포등가점수가 매우 높아 한국과 미국 패션디자이너들은 모두 ‘영업과 마케팅’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에서 높은 수준을 요하는 지식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디자인’, ‘상품제조 및 공정’, ‘영업과 마케팅’, ‘예술’ 순으로 지식수준의 정규분포등가점수가 높았으나, 미국은 ‘예술’, ‘영업과 마케팅’, ‘상품제조 및 공정’, ‘디자인’ 순으로 높아 일반적으로 이 4개의 분야에 대한 높은 지식이 양국의 패션디자이너 모두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디자인’에서는 한국에서는 아주 높은 지식수준( $NCE = 99.0$ )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미국에서는 좀 더 낮은 수준( $NCE = 72.8$ )이 필요하다고 하여 많은 차이( $ES = 1.24$ )를 보였다. 이로써 패션디자이너들이 한국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높은 지식을 요구하지만, 미국에서는 디자인보다는 예술분야에 높은 지식이 요구되므로 일반적인 예술분야에 걸쳐 폭 넓은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 V. 결론 및 제언

금융위기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실업률의 상승을 야기 시켰고,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관에서는 해외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미국으로의 해외취업이 장려되어 왔으며, 미국은 미래에도 디자인분야에서 취업 전망이 밝은 국가 중에 하나이다. 해외에 취업하기 위하여서는 그 국가의 상이한 환경이나 산업적 구조에 맞추어 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패션디자이너들이 미국으로 진출하여 취업할 경우 갖추어야 하는 자질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패션디자인의 업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수준을 비교연구 하였다. 자료는 대표적 직업정보 온라인 시스템인 한국의 한국직업정보시스템과 미국의 O\*Net에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패션디자이너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들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로 여러 통계적 지표를 비교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패션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지식수준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차이를 보였다. 같은 직종이라고 할지라도 종사하는 국가가 다르면 각국의 다양한 환경이나 산업적 구조 등이 다르므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수준의 지식이 요구될 것이다.

둘째, 한국과 미국 모두 패션디자이너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술’, ‘영업과 마케팅’, ‘상품제조 및 공정’, ‘디자인’에 있어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써 패션디자이너들이 패션상품디자인을 위하여 제품의 생산뿐 아니라 제품의 판매 등의 분야에서도 높은 지식을 지녀야한다는 점이 양 국가 모두 공통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컴퓨터와 전자공학’, ‘디자인’, ‘산수와 수학’, ‘심리’, ‘사회와 인류’, ‘의료’, ‘상담’, ‘교육 및 훈련’, ‘국어’, ‘외국어’, ‘안전과 보안’, ‘통신’, ‘의사소통과 미디어’ 분야에서는 한국의 패션디자이너들이 미국의 패션디자이너들보다 더 높은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



학과 기술', '건축과 설계', '기계', '운송'에 대한 지식은 미국 패션디자이너들이 한국 패션디자이너들보다 더욱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한국에서는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상담, 심리, 의사소통 등과 같은 인간관계 분야의 지식이 미국에서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보다 기계, 기술, 운송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지녀야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과 행정'과 '영업과 마케팅' 분야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자료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기관에서 패션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있으나, 각국의 연구대상자의 숫자가 적어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좀 더 많은 패션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세계화 시대에서 패션디자이너로 직업을 선택할 청년들이 해외진출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에 좀 더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해외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전공지식의 수준을 파악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경득. (2012).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열린충남*, 57, 68-69.
- 김균. (2012). 2012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제작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김지영, 박수희. (2013). 패션관련 직업 유형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5(2), 151-162.
- 네이버 지식백과 :교육평가용어사전(2004)에서 재인용. 자료검색일 2014. 6. 31,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미국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2013. 9. 30). 대한민국역진홍공사. 자료검색일 2014. 7. 31, 자료출처 <http://www.globalwindow.org>
- 박승찬. (2013). 급성장 中 패션기업 한국을 위협 믿을 건 브랜드뿐. 한국 디자이너가 중국 패션 브랜드 론칭하는 '역(逆) 인력 현지화' 증가. *Chindia plus*, 87, 46-47.
- 박중태, 조현수. (2009). 한국 청년실업률의 지역별 비교 분석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7(2), 87-104.
- 신수연, 조정아. (2009). 한국 패션 브랜드 글로벌 마케팅 전략 -미국 진출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3(1), 22-32.
- 이연채. (2014. 1. 13). 정부, 패션 지원 사업 해외 진출 주력. *어패럴뉴스*. 자료검색일 2014. 5. 13, 자료출처 <http://www.appnews.co.kr>
- 이임자. (2014. 1. 1). 섬유-패션의류산업의 재조명과 발전과제. *서울경제*, 자료검색일 2014. 7. 5, 자료출처 <http://www.si.re.kr>
- 지식/성격조사 설문지. (2008. 11. 30). 한국고용정보원. 자료검색일 2014. 5. 12, 자료출처 <http://www.work.go.kr>
- 직업별 인력수요전망 2008-2018. (2011. 7. 14). 한국고용정보원. 자료검색일 2012. 4. 2, 자료출처 <http://know.work.go.kr>
- 직업정보검색-패션디자이너. 한국고용정보원. 자료검색일 2014. 7. 1, 자료출처 <http://www.work.go.kr>
- 청년 해외취업 유망국가 10개국 선정 결과 발표. (2014. 7. 24). 청년위원회. 자료검색일 2014. 7. 31, 자료출처 <http://pcyg.young.go.kr>
- 통계청 보도자료. (2014. 1. 15). 201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자료검색일 2014. 6. 1, 자료출처 <http://kostat.go.kr>
- 한국직업전망. 한국고용정보원. 자료검색일 2014. 8. 1, 자료출처 <http://www.work.go.kr>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 Knowledge. Database 18.1. (2013. 6. 25). O\*NET Resource Center. 자료검색일 2014. 3. 1, 자료출처 <http://www.onetcenter.org>
- McCrae, R. R. (2008). A note on some measures of profile agre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0, 105-109.

- News Release. (2014. 4. 1). 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검색일 2014. 6. 13, 자료출처 <http://www.bls.gov>
- Occupational Profile. (2014). CareerOneStop. 자료검색일 2014. 6. 31, 자료출처 <http://www.careeronestop.org>
- O\*NET Data Collection Overview. 자료검색일 2014. 6. 31, 자료출처 <http://www.onetcenter.org>
- 2014년 1/4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 (2014. 5. 28).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검색일 2014. 6. 12, 자료출처 <http://www.nhis.or.kr>
- 759개 직업 최종조사년도 학력분포 학과분포. (2012. 2). 한국고용정보원. 자료검색일 2012. 5. 13, 자료출처 <http://www.work.go.kr>
- 784개 직업의 역량(지식) 백분위점수. (2013. 4. 15). 한국고용정보원. 자료검색일 2014. 5. 12, 자료출처 <http://www.work.go.kr>
- 784개 직업의 재직자 일자리전망 및 전망설명. (2013. 4. 15). 한국고용정보원. 자료검색일 2014. 5. 12, 자료출처 <http://www.work.go.kr>